

# 가정폭력 한해 평균 광주 5250건·전남 7452건

# 40대 A씨는 지난달 7일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부부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술병으로 때려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에게 임시조치 1-3호를 내려 B씨 주거·직장의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화·이메일로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이 검찰에 신청, 법원의 결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는 가·피해자 간 물리·공간적 분리 조치다. 가해 정도에 따라 주거 등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1호부터 상당소 등 상당위탁을 하는 6호까지 단계별로 나뉜다. 경찰의 제재에도 A씨는 9월 1일까지 B씨와 동거하면서 네 차례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고, 결국 지난 4일 임시조치 5호를 받아 1개월 동안 유치장에 갇히게 됐다.

# 여수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60대 C씨는 최근 아내 D씨의 머리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

최근 4년간 가해자 구속 꾸준히 늘어...광주 40명·전남 70명  
전국 피해자 17만여명 중 70%는 여성...2차 피해 방지책 필요

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C씨는 D씨가 명절에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에게 긴급임시조치를 내리고 D씨의 주거·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4년 동안 한 해 평균 광주 5250건, 전남 7452건의 가정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관(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광주

에서는 2만 821건의 가정폭력이 112에 신고·접수됐으며, 전남지역 신고 건수는 2만 9808건에 달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광주에서는 2019년 5250건, 2020년 4774건, 2021년 5125건, 2022년 5672건 등 신고 건수가 늘었으며, 전남 또한 2019년 7619건, 2020년 6836건, 2021년 7636건, 2022년 7717건 등 점차 늘어났다. 가정폭력 가해자 구속도 늘고 있다. 광주에서는 2019년 6명, 2020년 11명, 2021년 8명, 2022년 15명 등 4년 동안 40명이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전남의 구속자 수는 2019년 22명, 2020년 12명, 2021년 18명, 2022년 18명 등 총 70명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집계

됐다. 4년 동안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는 17만 1760명으로, 이 중 70.1%인 12만 532명이 여성이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신고 건수도 덩달아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전에는 가정폭력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넘겼을 일이라도,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문화가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뿐 아니라 신고 이후 보복 범죄나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그 자체도 중대한 범죄이나, 가정폭력을 피하려다가 스토킹 등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경찰, 10월 3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방범대책 추진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10월 3일까지 '추석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긴 연휴 기간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 시민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기습을 부리는 이상동기범죄가 연휴기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치안활동도 진행할 방침이다. 명절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현충기급업소 1899개(범의점 1232, 금은방 244, 금용기관 423)와 원룸 및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한 정밀 방범단속을 통해 취약한 곳은 중점관리 점포 및 탄력 순찰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CCTV 통합 관제 센터에서는 취약시간대 집중관제한다. 명절 연휴 112신고 분석에 의하면 가정 내 활동과 가족 간 접촉시간이 많아져 가정폭력이 평소 대비 40%가 증가하고, 폭력신고도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추석 연휴 전에 확대방범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전수 모니터링을 하고, 긴급임시조치결정 등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찰관들의 가시적 방범활동도 병행한다. 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소재불명자 검거에 집중하고, 고지·공개대상자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추석연휴 혼잡이 예상되는 교통대책도 2단계로 마련했다. 1단계(18-26일)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혼잡 예상지역에 선제적으로 경력을 배치하여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하고, 2단계(27일-10월 3일)는 귀성·귀경길 관리 및 성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교차로 위주로 교통정체 요인을 신속히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조선훈 총장 선거 6파전 10월11일 '온라인 투표'

오는 10월11일 치러지는 조선훈대학교 제 18대 총장 선거가 6파전으로 압축됐다. 조선훈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는 18일 총장후보자 선출 선거 임무보자를 마감한 결과 모두 6명이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조훈 공과대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고영업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교수, 이계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김준성 치과대학 치의예과 교수, 김재형 법사회대학 법학과 교수, 홍성금 자연과학·공공보건대학 융합수리과학부 교수(이상 등록순)가 등록했다. 총추위는 19일 이들 후보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후보로 확정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후보자 기호추첨을 실시한다. 이후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총장 선거에는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된다. 총장 선출 방식은 지난 17대까지 진행됐던 직접 투표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로 하기로 결정됐다. 선거인단은 학생 1만9000여명, 교수 700여명, 교직원 290여명, 총동창회 200여명 등 총 2만200여명이 예상된다. 당선자는 교수 72%, 교직원 14%, 학생 9%, 총동창회 5%의 득표율을 적용해 환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 민영돈 총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말 종료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추석 앞두고 강강술래 배워요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18일 광주시 북구 엠마우스 복지관 상생한마당 행사에서 강강술래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또 문 닫은 광주 대형 산부인과

지속적 분만 감소 경영난에 최근 3개월 새 4곳 폐업

광주 대형 산부인과가 광주지역 출산율 급감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대형산부인과인 '문화여성병원'은 "지속적인 분만 감소로 9월 30일자로 폐업 예정이다. 그동안 성원에 주셔서 감사하다"는 공고를 출입문 앞에 붙였다. 문화여성병원은 8층 규모의 대형병원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5명, 소아청소년과전문의 2명 등 8명

의 전문가 광주지역에서 출산을 앞둔 많은 임신부와 아동진료를 담당해왔다. 특히 광주지역에 몇 안되는 분만 병원이었다. 하지만 매년 광주지역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경영난이 잇따라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문화여성병원 총무부장은 "최근 분만 환자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폐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입원 또는 출산 예정 환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원처치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광주시 의사회는 올해 9월 기준 광주시 산부인과는 동구 6개소, 서구 7개소, 남구 2개소, 북구 7개소, 광산구 10개소 총 32개소로 불과 3개월 사이 광주지역 산부인과 4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분만이 가능한 지역 산부인과가 몇 곳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 복지건강국 건강정책과 담당자는 광주지역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몇 곳인지조차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정섭 광주시 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출생을 감소가 심해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미용에 치중하는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경영난에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 광산구 교회 목사 형령 혐의 최종 무혐의

'교회 대출금과 현금 등을 형령했다'는 이유로 피소(2022년 12월 23일자 광주일보 6면)됐던 광주의 한 교회 목사가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다. 장성경찰청의 지난달 11일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의 A교회 담임목사 B씨와 아내, 재정장로 등 6명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피소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A교회 신도 290명으로부터 B씨 등이 교회 대출금 33억원을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유용하고, 교회 현금 11억 6400만원을 퇴직금으로 빼돌렸다는 등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경찰은 "고발인 측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모두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서도 일주일여만에 경찰 수사 결과에 이견이 없다는 답을 보내와 최종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